

세계화와 청소년문화

이 원 봉*

- I. 문제제기
- II. 세계화와 문화의 의미
- III. 세계화와 한국청소년문화의 관계 및 인식
- IV. 세계화속의 한국의 청소년문화
- V. 세계화의 과제와 한국청소년문화의 방향

I. 문제제기

점차 21세기의 특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과학기술혁명 외에도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통신 사회의 등장, 경제의 글로벌화, 정치적 격변, 세계적 통합과 민족간 분열의 상반된 흐름 등이 그것이다. 현대 국제사회는 환경오염문제, 핵문제, 마약과 폭력범죄문제 등의 문제가 범람하면서 국가간의 긴밀한 협조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무한경쟁의 의미나 국제화가 무엇인가 하는 사려깊은 정의가 내려지기도 전에 출판, 교육, 영화, 비디오, TV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모

든 지적 자산이 국제화되어야 한다는 파고속으로 노출된채 '세계화'라는 구호아래 등을 떠밀리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환경적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식이나 행동, 제도 등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화가 진전될 수록 어느 것이 오래 문화인지 우리문화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도래하였다. 또한 우리가 수용해야할 외래문화가 너무 광범위하여서 어떤 것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 취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동시에 맞고 있다.

이런 당혹스런 문제의 극복 방안 중 하나가 문화선진국에 대한 열렬한 모방이나 추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일방적인 모방이나 추종이 하나의 문화라고 하더라도 현명한 대응방법 이랄 수도 없다(김주영, 1994). 최근에 우리사회에 세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세계화를 총체적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세계화와 청소년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현상이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개방화와의 현상

*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이 두드러지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청소년문화와 공존하고 또한 청소년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문화의 세계화를 예견하면서 우리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성세대들이 혹은 우리의 문화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갔던 기성세대들이 거의 무방비적으로 서구의 저질문화를 받아들여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오염시켜 놓았다는 것이다(김주영, 1994). 그래서 오늘의 청소년들은 어디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몰라 정신적인 표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성세대의 논리인 세계화속에 청소년들이 아무런 저항없이 그대로 흡수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신세대들이 갖는 세계화의 정서를 그대로 인정할 수만은 없다. 다만 기성세대의 세계화에 대한 사고와 인식의 영역속으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시각과 세계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화·세계화하면 대부분이 서구화를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문화의 세계로의 진출도 세계화의 중요한 몫이 되었다. 앞으로 한국문화의 세계화의 주체가 청소년이라는 것이 분명한 현실에서 한국의 청소년문화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일은 바로 현재를 이끌고 있는 세대들의 몫이라 할 것이다.

II. 세계화와 문화의 의의

1. 세계화의 의의

국제사회에 개방화가 심층되면서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라는 개념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위의 세가지 개념은 구별되어야 하며 또한 명

확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국제화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한 국가의 영역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두 나라 이상의 국가 사이에서 또는 두 나라 이상의 국가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가리킨다. 이에 반해 국내화는 의식이나 행동이 한 국가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국제화는 두 개 이상의 규범이 마주치게 되므로 어떤 규범을 따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행동이 한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의 규범에 따르면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규범에 따라야 할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명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타국의 규범을 인정하지 않고 자국의 규범만을 고수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화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제화에서는 타국과의 경쟁, 타문화에 대한 이해, 외국문화와의 접촉과 학습, 문화접변, 자국문화의 보존 등의 문제가 수반된다.

2) 개방화

개방화는 폐쇄화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외부와 상호관계를 맺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개방화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는 것, 자유로운 경쟁을 하게 되는 것,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 등이 가능하게 되는 것 등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자유화, 외국여행의 자유화, 외국문화와의 자유로운 접촉, 국내상품과 외국상품의 경쟁 등의 현상이 수반된다

(차경수, 1994 : 5~6).

3) 세계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개념은 국제화나 개방화와 같이 한 국가의 영역을 초월하는 행동이나 사고와 관련이 있지만, 그 초점이 조금 다르다. 세계화란 세계적인 규모의 개방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국가의 정책에 따라 촉진될 수도 있지만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물질적인 상품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화와 각종 정보 등 상호 필요에 의해 국경을 넘어서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다(엄정식, 1995. 9 : 14).

세계화는 세계가 하나의 촌락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주로 의미한다. 지구촌(global community)이라는 말은 지구 전체가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지역적 공간이 되었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에서 세계화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화의 현상에서는 전체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규범이나 공통적인 기준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세계인이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 세계시민의식, 지구촌 시민의식, 세계인의 평화와 번영, 인류의 이념 등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국제화, 개방화는 두 나라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나, 세계화는 전세계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에서는 전체 인류에게 공통적인 가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차경수, 1994 : 6).

세계화현상이 진전되면 정치경제의 영역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특히 현

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청소년들이 국제사회와 접촉하거나 국제사회로 진출할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외국문화의 국내유입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수반한다. 대개의 경우 문화의 심층적 또는 정신적인 측면은 도외시되고 감각적, 물질적, 외부적인 측면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까지 존중해서 따르던 규범 체계에 혼란이 들어오기 쉽다. 결국 바람직한 것은 받아들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거절하는 높은 안목 즉 비판적 사고력이 국민들은 물론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시대에는 비판적 사고력이 보편성과 함께 중요시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차경수, 1994 : 8).

또한 문화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상품을 수입하고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상품을 수출할 시에도 상호간의 문화와 보편적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들어 코카콜라가 세계도처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문화와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상품판매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세계화의 특징은 그 규모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진행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이고 또한 정치적 및 경제적 차원의 교류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문화적 측면까지도 모두 그 대상이 되는 실정이다(엄정식, 1995 : 11-12).

그런데 이와 같이 국경을 넘어서 교류가 광범

위하게 진행되면 이에 따라 인간의 사고와 조직과 전략에도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질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태도에 빈번히 직면하게 되므로 사고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생활태도가 신축성을 지니고 조직이 방대해짐은 물론이다.

앞으로는 이상과 같은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매우 치밀한 계획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단순히 외부세계로의 진출을 의미할 뿐 아니라 외국의 자본, 기업, 기술, 문화등의 수용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수용에 대비하는 방안과 대책의 강구도 의미한다. 결국 세계화는 '세계로의 진출'과 '세계로부터의 수용'을 함께 의미하기 마련인데, 이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세계와의 유기적인 통합'이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생산이나 분배, 교환등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보나 인간관계 등이 세계적인 규모로 이루어져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 정치, 문화의 재생산이 점점 더 세계적 맥락에서만 가능하고 또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들 각자의 생활태도나 사고방식, 신념체계도 세계적인 맥락속에서 형성되고 또 검증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함축하게 되는 것이다(엄정식, 1995 : 13-4).

2. (청소년)문화의 의의

문화라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주로 문화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여러가지로 제시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타일러(E. B. Tylor)가 내린 것으로 다음과 같다.

“문화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획득한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 및 기타 모든 능력과 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이다(Broom, Leonard and and Philip Selznick, 1977 : 56).

이 정의가 의미하는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탄생할 때 지니고 나온 생리적인 것은 제외하고 사회생활을 통하여 획득한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포괄적이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생활의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한편 클락혼(Kluckhohn)과 켈리(Kelly)는 우리의 행동 양식과 방향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문화의 기능을 강조하여 이렇게 정의한다.

“평시적이거나 암시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이거나 혹은 합리와 무관하던 간에 주어진 특정 시간에 인간의 행동의 잠재적 지침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생활의 설계를 문화라 한다.” (김신일, 1992 : 4)

클락혼과 켈리의 정의는 앞의 것과 비교해 볼 때, 구체적 행동과 삶의 방향과 방식을 지시하고 규제하는 속성을 문화가 지니고 있음을 뚜렷이 하고 있다. 실제로 한 사회의 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 사고 방식, 심미적 취향, 심지어 독특한 식성과 몸짓까지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클락혼의 정의등을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문화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청소년들의 의식·행동양식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의 행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

하였다.

우리가 이러한 청소년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문화가 그들이 행동하고 사고하는 방식은 물론이고 총체적인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오늘의 한국 청소년들이 속해 살고 있는 문화의 질은 곧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겠다.

문화는 변한다. 문화의 변화 속도가 전통 사회에서는 완만하였기 때문에 여러 세대가 동일한 문화속에서 살았으나,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세대 마다 다른 문화속에서 살게되었다. 오늘날 세대간의 차이가 커져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교사와 학생 사이에, 기성세대와 청소년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문화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는 더욱 빨라질 것이므로 미래사회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빠른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견 능력과 적응 능력을 얼마나 구비하였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문화의 변화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하나는 내부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요인이다. 이 가운데 외부 요인은 다른 문화와의 접촉, 문화인류학의 용어로 '문화접변' *acculturation* 을 말한다(김신일, 1992 : 6). 예를 들면 그 동안 한국문화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와의 접촉을 통하여 많은 서구문화를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외래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와의 접촉을 말한다.

앙드레 말로는 “문화의 세계는 변함 없는 불사의 세계가 아니라 계속 형태를 바뀌가는 세계다. 문화는 이제 더 이상 근대화의 장애물이 아니다. 문화는 발전의 열쇠다. 발전이란 모든 삶의 체험을 집산, 평가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문

화의 변화의 필연성을 역설하고 있다(페레스 데 케야르 : 1994).

특히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내부 요인 보다 다른 문화와의 접촉 및 수용에서 더 많은 변화를 낳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문화에 있어서도 시간이 흐름에 비례해서 더욱 많은 부분이 외래문화와의 접촉에서 변화되고 형성될 전망이고 보면 외국문화와의 접촉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민주화가 세계화의 가장 보편적인 추세에 있음을 주시하면 평화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화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실체다. 근대적 정신과 각 문화들간의 「민주적 대화」를 통해서만 새로운 발전모델과 문화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공개적인 정치토론을 통해 광범위한 문화적 경험을 수용, 자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페레스 데 케야르 : 1994).

우리는 외국문화와의 접촉 및 수용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외국문화와의 접촉과 이를 통한 외국문화의 수용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가 다양해지고 발전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의 어느 문화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로 발전되어 온것은 없으며 만약에 있다면 원시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특수한 오지의 문화일 것이다. 즉 고립된 상태에서는 문화가 다양해지고 발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문화적 고립이 자문화의 고수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문화발전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행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가 된다할 것이다.

한국의 청소년문화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는 타 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서로

운 자극을 필요로 한다. 다만 한 사회의 핵심적 문화 요소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인으로서의 문화적 개성을 갖추고 외국 의 여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폐쇄적인 문화적 국수주의와도 다르고, 개성을 잃은 문화적 무국적주의와도 다른 것이다.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외국 의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야말로 청소년문화를 육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김신일, 1992 : 12).

Ⅲ. 세계화와 청소년문화와의 관계 및 인식

앞으로 21세기에 들어서게 될 무렵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및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류 국가의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세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화'는 현재 우리세대의 임무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미래의 창조적 작업이며, 앞으로 수립되는 모든 정책의 기본자세일 뿐 아니라 새로 등장하는 모든 세대들의 시대적 사명이기도 한 것이다. 세계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생활태도와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신념체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엄정식, 1995 : 12).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 많은 정보를 접속하고 있고 또한 의식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 세계화 되어 있다. 이들의 의식의 변화를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개발한 「청소년지표」를 통해 그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계화정보 접촉에 대한 수단

정보화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청소년들

은 가정이나 학교 이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회의 실상에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TV와 라디오'가 63.6%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친구·선배'는 8.9%, '부모·형제·친척'은 8.7%, '신문·잡지'가 8.1%, '학교선생님'은 7.7%로 나타났다.

매체의 유형별로 응답결과를 분류하면 '전파매체(TV와 라디오)'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파매체는 신속성을 그 특징으로 하지만, 선정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쉽고 수용자의 내성적(內省的) 사고를 제약하는 특성이 있다. 전파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이 비판적인 안목에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한국의 청소년지표」, 1994 : 289-290).

2) 해외여행 경험

해외여행의 자유화와 더불어 해외여행의 기회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한국청소년들의 해외여행 경험은 94.8%의 청소년들이 없다고 응답하여 아직도 한국청소년들의 해외여행은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한국의 청소년지표」, 1994 : 334). 세계화에 대한 실제 체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세계화 감각은 실제적인 체험보다는 간접매체인 대중매체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바로 이점이 커다란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이다.

3) 국제화를 위한 대비사항에 대한 인식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하는 설문에 대하여 '외국어 구사능력'과 '우리 문화·전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청소년들이 31.0%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고, '외국과의 교류의 확대'가 20.1%, '외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가 17.9%로서 가장 낮았다(「한국의 청소년지표」, 1994 : 337-8). 우리 청소년들은 기대와는 달리 우리 전통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접촉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는 많지 않다는 점이 현실이다.

4) 외국 대중문화의 수용의 경향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영화는 미국영화가 56.7%로서 과반수를 점하였으나 우리나라 영화는 8.1%에 불과하였다. 대중음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음악을 즐긴다는 응답비율이 전체의 75.7%를 차지해 압도적이었고 미국음악이 18.5%로 그다음이었다. 기타 국가의 음악을 즐긴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한국의 청소년지표」, 1994 : 339).

영화의 경우가 높은 것은 미국영화의 수입이 한국영화방화를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미국영화를 많이 관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영화를 많이 봄으로써 미국문화를 간접적으로 익히고 수용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한국 음악을 즐기는 비율이 압도적이기는 하나 최근 청소년들이 즐기는 음악풍이 우리 고유의 스타일이 아닌 서구풍 특히 미국의 스타일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영화의 경우와 실질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없다할 것이다.

5) 인적 교류에 대한 태도

외국 취업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84.6%를 차지하고 의사가 없다는 청소년들은 15.4%에 불과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다수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해외에 취업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지표」, 1994 : 342). 이를 통해 오늘의 청소년들은 세계화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최근에 들어 외국의 문화에 접할 기회도 많고 실제로 외래문화를 많은 부분 모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래문화의 모방을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방 자체가 세계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평양에는 프랑스 파리의 그것보다 규모도 훨씬 웅장하고 호사스런 개선문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리의 개선문을 보려고 프랑스를 방문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평양의 개선문을 보려고 북한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김주영, 1994. 2. 20). 이는 사상이나 전통이 없는 결과물은 아무리 호화롭고 웅장하더라도 의기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껍질에 불과한 것이라는 풍자이다.

조셉 나이는 「세계를 이끄는 미국」이라는 저서에서 “현재 미국은 하드파워(군사·경제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소프트파워(문화의 영향력)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도력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며 미국의 장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한 적이 있다(김은상, 1995. 9. 17).

최근 미국의 TV방송사와 방영물 제작사의 합병을 방지해온 미국정부의 규제가 풀리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소프트파워인 방송문화사업체 합병 인수가 잇따라 세계를 석권하는 미국방송문화사업이 집중화·거대화의 길로 나가고 있다. 디즈니사가 ABC를 인수하였는데 디즈니사는 전세계에 만화영화와 미키마우스 티셔츠와 그림책등도 팔고 있으며 도쿄와 파리에도 대규모 오락시설을 갖고 있다. 이제 디즈니사가 직접 TV방송까지

소유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문화전쟁에서 초대형 챔피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청소년들은 우리문화에 제대로 접해보기도 전에 「미녀와 야수」, 「백설공주」, 「알라딘」 등 미국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보며 자란다. 미국문화에 익숙한 이들은 결국 코카콜라, 켈터키치킨, 맥도날드햄버거 등의 기호를 즐긴다. 외래문화의 확산은 결국 잠재적인 미국 소비자를 키워나가는 결과를 낳는다.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적인 상품을 창출해 낸다. 이는 미국문화와 소비만이 아니다. 일본청소년문화의 유입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한국청소년들의 소비문화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에 까지도 깊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한 TV 광고물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실감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크게 우려된다. 예를 들어 최근 TV에 출연하고 있는 외국의 스포츠스타들은 마이클 조단, 샤킬 오닐, 타이턴 보그스, 그렉 웰치 등을 들 수 있다. 그렉 웰치는 94년 철인 3종경기 세계챔피언이고 그의 3명은 미국 프로농구선수들이다.

이들 농구선수의 잇따른 국내 TV광고 출연은 최근 미국프로농구(NBA)의 인기몰이로 상품광고에까지 연결해보자는 업체측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작년 월드컵 축구바람을 타고 독일 축구선수 마테오스가 푸마광고에, 미국월드컵팀 주전 멤버들이 나이키광고에 나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1995년들어 외국선수들이 나오는 광고는 샤킬 오닐이 출연하는 롯데칠성의 펩시콜라, 마이클 조단이 나오는 제일제당의 스포츠음료 게토레이 등으로 청소년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수광고가 주종을 이룬다. 펩시콜라와 게토레이는 해외도입 브랜드

인데다 광고도 외국에서 직수입한 것이다. 이에 비해 보그스와 그렉 웰치가 각각 모델로 나온 현대자동차의 엑센트, 롯데칠성의 맥스파워는 외국 상품과의 경쟁에서 토종의 매운 맛을 보여 주기 위한 국내제작 광고인데다 모델의 이미지가 바로 상품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보그스는 1백60센티의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빠른 몸놀림과 현란한 드리블로 2m가 넘는 미국의 프로농구계를 휘젓고 다니는 신화적인 인물이다. 현대자동차측은 엑센트가 '작지만 야무진 차'임을 강조하기 위해 보그스를 특별히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맥스파워는 롯데칠성이 울여름에 새로 선보인 국산 스포츠음료수이다. 맥스파워광고를 제작한 대흥기획은 "기존제품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새롭고 격렬한 스포츠활동을 선호하는 신세대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반인에게 생소한 철인3종경기 선수를 찾아냈다"고 말했다(국민일보, 1995. 6. 19).

이와 같은 경향은 물론 세계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 효과가 청소년들의 소비경향을 크게 자극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의 잠재의식에 외국의 유명인들에 대한 편견이 깊게 내면화 될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들의 직업관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를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킬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용어, 용모 등이 서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IV. 세계화속의 한국의 청소년문화

최근 한국사회의 경우 세계화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의식에는 엄청난 정

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기성세대나 신세대 모두가 거의 속수무책일 정도의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같은 세대차의 틈새에 음흉한 상업주의적 계략이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X세대하는 청소년집단의 명칭에 각종 프리미엄을 붙여주면서 이들을 선동하고 통제함으로써 세대간의 긴장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창조적인 작업이다. 따라서 미래의 주체인 청소년들은 또한 이러한 작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자유민주주의의 추세, 그리고 과학기술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체로 그들은 물질적으로 궁핍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로서 기성세대의 고난과 질곡을 실감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여 권력에 대한 야심이 희박하고 경제적으로는 무절제하게 과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적으로는 현세적 쾌락주의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엄정식, 1995 : 15).

한국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겪은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관, 문화적 갈등의 역사와 단절된채 자기 중심적으로 존재하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 민족, 경제, 계급 등의 사회적 갈등구조로 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평등, 민주와 해방이 곧 손에 닿을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들은 소비자 사회의 논리에 포섭되어 사회적 갈등구조로 부터 봉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모순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도 격리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인간중심주의 사상이 사라져 버렸다. 그 대신 물질만능주의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웃과 정을 나누며 더

불어 사는 상부상조 정신이 퇴색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가족주의가 팽배해 있을 뿐이다. 또한 반인간주의적 물질주의와 권위주의와 이기주의의 문제가 비단 가정 내부만의 문제는 이미 아니다. 이제는 가족주의만으로는 세계화-보편적인념으로서의 가치의 결핍-에 적응키 어렵다(김동일, 1994 : 174).

오늘의 한국청소년 자신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그들은 버릇없고 돈이나 물건 귀한 줄 모른다. 또 그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어서 남이나 공중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어른들의 간섭은 말할 것도 없고 이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이나 관습을 무조건 배척하려 한다.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모르는 무규범상태에서 파괴를 위한 파괴에 몰두할 때 세대갈등의 심화는 불가피하다.

반항하는 신세대를 모두 부정적으로만 볼일은 아니다. 이들은 개성이 강하고 주체적이며 따라서 자기표현력이 강하고 창의적이다. 재미있는 사례로 요즈음은 미팅을 할시 상대방을 선정하는 것이 전에처럼 운명에 맡기는 것(번호표 또는 그림이나 부호 맞추기등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상호간에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자리에서 손가락으로 지명하게 되어 있다. 이는 단적인 예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안하고를 분명히 밝히는 직선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의식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의 청소년들의 적극적이고 직선적인 경향들은 자칫 기성세대의 보수성과 현실 안주의식으로 인해 침체되거나 낙후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문화에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활력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세대간의 긴장이나 갈등도 「정·반·합」의 변증법적 발전의 한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김동일, 1995 : 175).

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은 안일하고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현세적 삶을 살고 있지만 일부는 미국이 누렸던 영광과 자긍심이 손상받고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한번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의지의 신세대들이며, 다른 일부는 방종과 타락과 범죄에 물들어서 미국의 쇠망을 제촉하는 신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의 신세대들은 민족적 긍지를 상실하고 있다가 최근에 독자적인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미국에 의존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별도로 객관적 가치인 평화와 평등을 급진적으로 추구하는 한편, 기성 가치를 파괴하고 부정하여 인구의 감소와 도덕의 붕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일본의 신세대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매우 성실하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의 우수 보험회사인 푸르던설사는 9월 6일 워싱턴의 한 기자회견에서 「Y세대가 X세대를 대체하고 있다」는 자료를 내 놓았다. 이는 미국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봉사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였다. 여기서 Y세대란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미국 전역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놀랍게도 응답자의 95%가 지역사회를 위해 각종봉사활동에 참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참여세대」를 Y세대로 부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X세대가 자기중심적이고 사회에 무관심하다는 점과는 대조적으로 Y세대는 매사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참여적이기 때문에 어떤일에도 Yes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Y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오늘의 미국의 20대와는 다른 대단히 긍정적이고 참여 지향적이라는 자체평인 것이다(이재호, 1995. 9. 17).

최근 한국의 청소년들이 문제보다는 활력과 희망적이라는 일부 시각에 비추어 볼때 매우 시사적인 보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세계화의 과제와 바람직한 청소년문화의 방향

한국의 미래 세계화의 주체는 청소년들이다. 그러나 미래 세계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수 있는 자율능력을 배양하게하는 일은 기성세대들의 몫이다. 이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고 자율성을 제공하는가 하는 일은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청소년들이 구비해야할 능력과 청소년문화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적 능력의 향상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지적 능력의 향상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 기능 *intellectual skill*의 향상이 시급하다. 지적 기능은 어떤 정보나 경험을 단순히 암기하거나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것을 새로운 상황에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등 확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급사고력 *higher order thinking*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급사고력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개방적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의미와 필요성은 더욱 크다. 미래사회의 성패는 그 나라의 국민 특히 청소년층이 이러한 능력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에 달려 있다. 고급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단세포적인 단순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협상하고 담판을 할 경우 누가 최종적인 승리가 될 것인가는 명확하다. 이러한 점이 청소년

년교육에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에는 지적 기능이라고 할 때 흔히 의사소통의 기능, 읽기와 쓰기의 기능, 지도와 자료를 해석하는 기능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지적 기능은 의사결정력, 사회과학적 탐구력, 가치탐구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조적 사고력 등 매우 고차원적인 것들이다(차경수, 1994 : 15-17).

2) 타국 및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나 국가를 상대로 교류를 하게 될 것이므로 타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고정적인 시각과 관념들에 대해 수정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도 역할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타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에서는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자국문화의 척도로 타문화를 평가하기 보다 타문화의 속에서 그 문화를 실제로 느낄 수 있게하는 것이 문화상대주의에 의한 교육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탈이데올로기의 시대이므로 중국사람들과 그리고 베트남사람들과 교류를 증대시켜야한다.'는 당위성만을 청소년들에게 주입시킬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 등 실제로 생활을 같이하게 함으로써 비로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보편성 증대

한국이 세계문화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발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보편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한국문화를 타문화와 구분하는 특징이 없다면 그것은 한국문화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한국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른 한편 한국문화가 세계인들로부터 이해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세계인들의 마음에 드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문화의 독창성과 보편성을 더욱 개발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보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각

세계화시대에 임하여 한국의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각이다.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질서의 요체는 자유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현이며, 그것은 대인관계에서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관계에서도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민주시민으로 교육받고 또 성장하는 것이 세계화에 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점이다. 여기서 민주화란 가장 바람직한 가치관이며 각자 자기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생관인 동시에 사물의 본질과 현상의 구조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개방적 세계관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동서고금의 고귀한 문화적 전통과 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국가적 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실현하려는 것이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엄정식, 1995.9 : 20).

5) 민족정체성

한국의 청소년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기

성세대가 도달한 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의 기성세대가 이룩한 업적은 미완성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절감해야 하는 것은 세계화의 기본 전제가 되는 민족적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화의 기치를 높이 들어도 세계화할 주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방향감각을 잃게 되고 결국은 어느시점에서부터는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엄정식, 1995.9 : 19).

한국의 세계화정책에 의해 남한의 생존과 번영이 보장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의 적개심과 소외감을 조장하고 민족의 분단을 심화시키게 된다면 우리는 이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화는 남한만의 세계화가 아니라 한민족 공동체의 세계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은 미래의 창조적 작업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의 주역인 신세대의 생활태도와 사고방식을 주의깊게 분석하고 지도해야 하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엄정식, 1995.9 : 13).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물론 청소년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세계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청소년육성의 방향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차경수. 1994. “세계화와 시민의식”, 서울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논문집.
- 엄정식. 1995. “세계화와 신세대, 그리고 민족적 자아”, 한국청소년개발원세미나.
- 김신일. 1995. “청소년문화의 의미와 성격”,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문화론.
- 김동일. 1995. “파괴시대의 세대갈등”, WIN.
- 이재호. 1995. “미국의 X세대와 Y세대”, 동아일보.
- 김은상. 1995. “무역전쟁과 문화전쟁”, 동아일보, 9. 17.
- 이영숙. 1994. 「한국의 청소년지표」,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주영. 1994. “전통문화의 세계화”, 조선일보, 2. 20.
- 페레스 데 케야르. 1994. “다양한 문화는 발전의 열쇠”, 동아일보, 7.2.
- 국민일보. 1995. 6. 19.
- Broom, Leonard and Philip Selznick (1977), Sociology, Harper and Row. 1977.